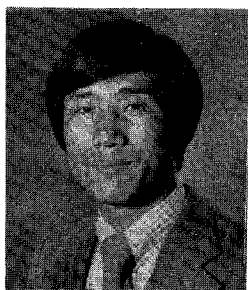


감별사 해외 진출의 길이 열릴듯

—국내의 무계획적인 감별사 양성은 지양돼야—



박기환씨

〈취재부〉

수년간 우리 감별사의 해외진출이 부진함에 따라 감별사 공급과잉 현상으로 인해 국내 감별업체가 침체해있다. 이번에는 10년동안 서독에서 감별사로 종사하면서 우리 감별사의 유럽진출에 노력해왔던 박기환씨를 만나 유럽의 감별업계 및 진출전망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한국 감별사의 실력 우수

● 먼저 자기 소개와 경력 및 귀국하신 이유, 유럽의 감별업계 실태를 말씀해주십시오.

● 65년에서부터 감별을 시작했으며 67년 5월 출국하여 한국인 최초로 서독 씨머(Cierner) 회사에서 지난 76년 11월 까지 10년 동안 근무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장벽 때문에 고충이 많았으나 틈틈히 독일어 공부를 하여 6개월만에 현지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이번에 서독에 우리 감별사 5명을 보내기 위한 수속을 하기 위해 지난 12월 29일 귀국했습니다.

올해 6월쯤 미국의 감별 용역 회사인 Am-Chick (American Chick)과 계약을 맺고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미국의 시장을 개척해 볼 생각입니다. 그동안 제 나름대로 우리 감별사를 유럽에 진출 시키려고 많이 애를 썼으며 또한 유

럽 내에서도 여러지역과 신진대사와 교류를 시키고저 일을 하다보니 유럽과 미국의 감별업계를 소상히 알게 되었습니다.

유럽에는 영국,홀란드를 제외하고는 현지인 감별사는 거의 없으며 한국인이 약 60명,일본인이 약 80명 (독일에는 한국인 30여명, 일본인 40여명)으로서 거의가 한국및 일본인 감별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란에 2명과 터키에 1명의 한국인 감별사가 있으나 앞으로는 인도네시아의 값이 싼 감별사들이 유럽에 진출할 것 같습니다.

처음 제가 독일에 갔을때는 일본감별사들이 대다수 였으며, 계약 조건도 불리 했으나 그후에 진출한 우리 감별사들이 단합하고 기술면의 노력을 한 결과, 일본인들과의 경쟁에서도 이겨 한국인 감별사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조건도 개선돼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수입면에서 독일의 경우는 100수당 2.80마르크 (한화 약 560원)를 받으며 1년에 150만수 정도 감별을 하게 됩니다.

유럽에서도 독일이 비교적 대우가 좋은 편이며 현재 계약기간 3년으로 총수입의 약 4%는 세금, 10~16%가 코미션으로 지출됩니다.

유럽지역은 포화상태

유럽은 거의가 산탄계 감별이며 (영국제외) 스페인도 양계분야에 미국 자본이 투입되므로 감별사의 대우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한때 유럽사람은 손이 크고 적성이 맞지 않아 감별하는 현지인들이 없다는 얘기는 근거 없는 낭설이며 단지 그들은 그 배우기 어렵고

단순한 반복작업인 감별을 하지 않아도 취업에 곤란을 느끼지 않으므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뿐이며 실제로 영국, 홀란드, 이스라엘의 경우, 감별사는 거의 현지인들입니다.

현재 대체로 유럽지역은 감별사의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이며 다만 유럽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감별사나, 고령으로 은퇴하는 자들의 자리를 메꾸는 정도의 감별사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당분간 미국에의 진출전망은 밝을듯

● 미국 감별업체로의 진출 전망과 계약조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미국감별업체는 이번에 제가 가게될 Amchick이라는 감별사 고용회사가 가장 규모가 큰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미국내의 감별사 수요를 많은 부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감별사는 29명의 한국인 감별사를 비롯해 대다수 일본인, 멕시코인, 또한 일본인2세의 미국인들로 200여명이 됩니다.

현재 미국은 감별사가 부족상태라 작년초 미국 이민국에서 감별 이민 코너를 해제 했으며, 또한 현재 활동하는 감별사 중에도 고령자가 많아 세대교체가 될 것이므로 우리 감별사들의 진출이 용이해져 제 생각에 1년에 4~5명 정도는 당분간 계속 나갈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현재 Amchick회사의 계약조건은 5년 계약에, 5년동안 최저 5만불을 보장하며 실제로 대개 연봉 18000불이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 값을 포함한 2000\$ 정도의 비용을 지불 해야 하며 코미션이 10~15% (지사에 지불되는 코미션이 5%에서 매년 1%씩 줄어든다) 세금이 13~15%입니다.

미숙한 감별사의 해외취업은 악영향을 미쳐

● 협회와 감별업체 그리고 해외진출 희망자에 대한 요망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국내 사정에 어둡지만 느낀대로 몇가지 얘기 하겠습니다.

먼저 감별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소양및 적성을 냉정히 검토한 후 감별분야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얻어 스스로 판단한 연후에 기술을 익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보기에 국내에서 감별사들의 대한 보수와 대우가 나쁜데 놀랐습니다. 이것은 감별사 인구가 과잉이라는 데도 문제점이 있겠지만 부화업체에서도 재고해 주기를 바라며 또한 이런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감별사의 해외취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국내 감별 인구만으로도 얼마동안 국내외 감별사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국에도 짧은 시일내에 대량으로 감별사를 필요로 하는게 아니므로 1년에 10명미만의 진출이 가능할 것 이므로 협회가 주도하여 계획적인 감별사 양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예를 볼때 유럽으로 진출한 감별사중에 일부 실력없는 자들이 끼어 있어 한국인 감별사의 평판과 인상을 흐리게 하는 사례를 보았는데 앞날의 신용을 위해서 이러한 자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근절 시키도록 협회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에 나가는 감별사들은 현지의 한국 감별사들과 협조하여 단합을 이룰때 훨씬 유리한 대우를 받게되며 기타 잇점이 있으므로 이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감별협회와 전 일본감별협회가 계약을 맺고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협회도 이런 점에 착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 나가있는 감별사들의 긴밀한 협조를 얻어 협회의 해외지부를 설치하므로서 정보의 교환등 여러가지 유리한 잇점이 상호간에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이라고 봅니다.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협회에 자주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